



철새 갤러리 5일 현대대리성CC에서 열린 '카이도골프LIS 투어 챔피언십' 1라운드가 열린 충남 태안 현대대리성CC 위로 철새가 날아가고 있다.

<KPGA 제공>

부탁해요 '엄마 코치'



KIA 유동훈 코치(왼쪽)가 일본 오키나와 킨 구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무리캠프에서 한 기주의 피칭을 지켜보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유동훈, 선수 아닌 코치로 재할군·교육리그 참여 “마무리 캠프서 이대진 선배 보좌하며 투수들 조련할 것”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 이제는 선수가 아닌 코치 유동훈이다. '막내 코치'로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를 보내고 있는 유동훈 코치는 신인이 된 기둥이다.

일본 오키나와에 꾸러진 KIA 마무리 캠프의 코치진 막내는 유동훈이다. 2014년 여름 은퇴를 선언했던 유 코치는 2015년 여름 은퇴식을 끝으로 선수 타이틀을 공식적으로 내려놓았다. 재할군 선수들을 맡아 코치로서의 생활을 시작했던 그는 올 초 미국에서 연수를 받은 뒤 지난 10월에는 교육리그 코치로 역할을 하며 조금씩 코치라는 자리에 몸을 맞춰가고 있다. 이번 캠프에서 그는 이대진 코치를 도와 투수들을 조련하고 있다.

유 코치는 “선수가 아닌 코치로 뛰는 캠프라서 그런지 신인이 된 느낌이다. 긴장도 많이 되고, 선배 코치님들을 잘 모셔야겠다. 특히 이대진 코치의 보좌역할을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을 오가면서 보낸 올 시즌은 배움의 시간이었다.

유 코치는 “구단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연수고 가고 교육리그도 다녀왔다. 교육리그에서 투수 운용도 해보고, 인스트럭터 코치에게도 많은 것을 배웠다. 또 재활 파트에서 선수들을 살피고 가능성 있는 투수들과도 같이 해보면서 여러가지를 느꼈다. 보람찬 해였다”고 2015시즌을 돌아봤다.

특급 소방수로 V11을 만들었던 투수 유동훈, 선수라는 이름을 놓고 코치로 활동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없었다. 올 시즌은 '유동훈'을 버리는 시간이기도 했다.

유 코치는 “애들을 보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면 답답해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선수들마다 능력과 성향이 다르니까, 그런 마음을 지우려고 했다. 내가 선수를 했던 모습을 아예 지워버리고 애들에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최면을 걸고 있다. 운동은 목표가 있어야 하고, 그 과정을 잘 실행해야 목표가 이뤄진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견디고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끌었다”고 말했다.

마음을 비운 '막내 코치'는 고민과 고민 속에 전방지축 선수들을 이끌며 노하우를 쌓았다.

유 코치는 “많은 선수들이 주어진 역할, 스케줄을 잘 소화하는 데 가끔 분위기를 흐려트리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 가장 호되게 선수들을 혼낸 것 같다. 많은 애들을 이끌다보니 속하는 순간도 있었다”며 “감독님께서 올 시즌 시작을 하면서 코치들에게 권한을 많이 주셨다. 하기 싫어하는 애들은 쉬게 하라고도 하셨는데 정말 그러면 다음 날 애들이 어쩔 줄 몰라하면서 더 열심히 하더라”고 웃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내공을 쌓았던 '막내 코치'는 마무리 캠프에서 엄마같은 코치로 실력을 발휘할 생각이다.

유 코치는 “애들이 다 어리다. 이대진 코치님이 먼저 이야기하시고 끌고 가시면 나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 엄마같이 애들을 챙기고, 이 코치님이 말씀 못하시는 부분을 말하기도 하면서 선수들을 이끌겠다. 다들 열심히 해주고 있어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리미어 12 '막차' 합류 동성고 출신 NC 임창민 “예측불허’ 2015년 ‘유종의 미’ 거두겠다”

“제가 준비한 것보다 많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광주 동성고 출신의 NC 다이노스 임창민(30)은 올 시즌을 불펜으로 시작했지만, 예기치 않게 마무리 중책을 맡아 KBO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31세이브를 올렸다. 그 기운을 이어받아 프리미어 12 국가대표팀에도 합류했다.

시즌을 시작하기까지의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다. 그는 미국 애리조나 스포팅 캠프 중 갑자기 몸살에 걸려 훈련을 마치지 못하고 귀국해야 했고, 4월이 1군에 합류했다.

지난 4일 대표팀과 쿠바의 평가전인 '2015 서울 슈퍼시리즈'를 앞두고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만난 임창민은 “노력 대비 많은 것을 얻어가는 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상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가 NC에서 마무리 보직을 맡은 것은 기존 마무리투수인 김진성(30)이 오른쪽 종아리 근육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다. 국가대표에 합류한 것은 원정 도박 혐의로 대표팀에서 제외된 삼성 라이온즈의 마무리 임창용(39)을 대신해서다.

임창민은 “국가대표를 항상 꿈꾸기는 했는데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결과가 나

왔다”고 말했다.

임창민은 “운이 좋았다”고 말했지만, 결국은 준비가 잘 돼 있었기 때문에 뜻밖에 찾아온 기회를 잡은 게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임창민은 “여기에 있는 저 선수들과 같아서 제가 여기에 온 게 아니다. 이제 턱걸이로 왔다.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안 된다”며 겸손해했다.

올 시즌 좋은 성적(1승 5패 31세이브 평균자책점 3.80)을 거둔 것에 대해서는 “팀과 코치, 동료에게 의지하면서 더 가벼운 마음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대치를 가지면 안 될 것 같다. 기대치를 가질 수 없다”고 거듭 말했다.

국가대표로서의 임창민은 이제 시작에 비해 많은 것을 얻어가는 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상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가 NC에서 마무리 보직을 맡은 것은 기존 마무리투수인 김진성(30)이 오른쪽 종아리 근육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다. 국가대표에 합류한 것은 원정 도박 혐의로 대표팀에서 제외된 삼성 라이온즈의 마무리 임창용(39)을 대신해서다.

임창민은 “국가대표를 항상 꿈꾸기는 했는데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결과가 나

/연합뉴스

美 매체 “박병호, ML 스토브리그 달굴 1루수 4위”

박병호(29·넥센 히어로즈)가 올겨울 메이저리그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 나온 1루수 중에서 '탑 5'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의 스포팅뉴스는 5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 스토브리그를 달굴 1루수 리스트를 꼽으면서 박병호를 4위에 올려놨다. 전체 1위는 올 시즌 아메리칸리그 홈런왕인 크리스 데이비스(볼티모어 오리올스)다. 2위는 콜로라도 로키스에서 FA로 풀리는 저스틴 모노, 3위는 텍사스 레인저스의 마이크 나폴리가 차지했다.

스포팅뉴스는 박병호의 올 시즌 성적과 올해 연봉을 소개하면서 “피츠버그의 내야수 강정호의 전 팀 동료인 박병호는 KBO리그에서 두 차례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며 “박병호는 2년 연

속 50홈런을 기록했고, 4년 연속 100타점 이상을 올렸다”고 했다.

이 매체는 박병호에게 가장 적합한 팀으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탬파베이 레이스를 꼽았다. 모두 거포 1루수가 필요한 팀들이다.

스포팅뉴스는 먼저 강정호의 성공적인 활약 덕분에 박병호가 메이저리그에서 통할지에 대한 의문은 줄어들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지난 3년간 홈런 개수에서 메이저리그 전체 28위에 그친 세인트루이스에 박병호는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홈런군단 시카고 컵스에 대적하는 데 필요한 옵션일 수 있다고” 짚었다.

세인트루이스는 지난해 강정호 포스팅 때에도 입찰에 나섰다가 피츠버그에 밀려

서 협상권을 얻지 못했다는 소문이 도는 팀이다. 박병호에 대한 관심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팅뉴스는 “KBO리그의 구장 규모가 메이저리그보다 작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면 박병호는 베테랑에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클리블랜드에도 1루수 또는 지명타자로 적합할 수 있다는 평가를 했다. 1루수·지명타자로 뛰는 카를로스 산타나는 최근 2시즌 연속 타율 0.235를 넘지 못했다. 탬파베이 역시 지명타자가 약한 팀으로 평가받는다. 스포팅뉴스는 “탬파베이는 공격적인 측면에서 촉매가 필요하다”고 했다.

/연합뉴스



샌디에이고 야구장, 9홀 골프장 변신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장이 9홀 골프 코스로 변신했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채널은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홈 경기장인 팻코파크가 이번 주 파3 9홀 골프 코스로 개조됐다”고 5일 보도했다.

파드리스 구단과 골프 브랜드 캘러웨이와 함께 만든 이 ‘야구장 골프장’은 전장이 1002야드(약 916m)로 9개의 파3 홀로 구성됐다.

골프채널은 “코스 곳곳에 나무를 심고 병커도 만들어 실제 골프장과 다름없는 느낌이 들도록 했다”고 묘사했다. 물

론 팻코 파크가 영구적으로 골프장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주말까지 예약자들에게 야구장에서 골프를 하는 경험을 하도록 하는 이벤트 성격이다. 원래 미리 참가 신청을 한 144명만 대상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일찍 마감된데다 참가 문의가 이어져 참가 대상을 1500명으로 늘렸다.

참가비 50달러(약 5만6000원)를 내면 기념 모자와 주차권, 캘러웨이 상품 시타 기회를 준다. 또 200달러를 낸 사람은 캘러웨이와 샌디에이고 구단 로고가 함께 박힌 웨지까지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